

총선 D-90...여야 공관위 구성·룰 확정 공천작업 속도

국힘 공관위 정영환 위원장 내외부 인사 10명...친윤 이철규 포함 민주 현역 하위 평가자 페널티 강화, 전략지 청년·여성 우선공천

오는 4·10 총선을 90일 앞두고 여야가 공천 작업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11일 총선 후보자 공천 작업을 총괄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들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는 등의 주요 공천 규칙을 사실상 확정했다.

◇국민의힘, 공관위 인선 의결=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정영환 공관위원장 등을 포함한 10명의 공관위원 인선을 의결했다.

현역 의원 중에는 친윤(친윤석열) 핵심 인사이자 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 비례대표이자 당 중앙장애인위원장인 이종성 의원이 포함됐다. 장동혁 사무총장도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외부 인사로는 문해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고 직전 총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관위원을 지낸 유일준 변호사가 포함됐다.

윤승주 고려대 회계 교수, 전종학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 회장, 전혜진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사, 황형준 보스턴컨설팅그룹코리아 대표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공관위원 10명의 전체 평균 연령은 55.6세로 1970년대생이 절반을 차지한다. 여성은 2명 포함됐다.

또 10명 중 5명이 법조계 경력이 있거나 로스쿨 학위가 있는 법 전문가다. 법률가뿐만 아니라 4명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철규 의원의 인선 배경에 대해 "인재영입위원장이 공관위원 중 한명으로 포함돼 축적된 자료를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친윤 핵심인 이 의원이 포함된 건 윤석열(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렇지 않다. 지금 당을 이끄는 것은 나다. 그리고 공관위원장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이기는 공천을 할 것이고, 공천은 공관위원장과 내가 직접 챙길 것"이라며 "앞으로 그런 우려는 기우였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총선 공천 과정에 이른바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개입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역 물갈이 비율, 영남 및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의 공천 비율 등에 대해선 "그건 아직"이라며 언급을 아꼈다. 이날 인적 구성을 완료한 공관위는 다음 주 첫 회의를 할 예정이다.

◇민주당 총선거획단, 주요 공천 사실상 확정...공관위 질자만 남아=더불어민주당 총선거획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연 뒤, 브리핑을 통해 전략지역 청년·여성 우선 공천 등의 주요 공천 규칙에 대한 논의 내용을 발표했다.

민주당 총선거획단장인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총 9차례 회의 걸쳐 총선 승리를 위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다"면서 "총선거획단 활동은 마무리하고 앞으로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와 전략공관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거획단은 후보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하게 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한 후보자 검증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등 검증기준 강화를 제안했다"며 "선출직 공직자 평가 시 페널티 강화도 제안해 공천에 적용된다"고 구체적인 공천물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역 의원의 경우 감산대상은 기존과 같이 20%를 유지하되, 하위 10%의 경우 감산비율을 3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청년·여성 정치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해 줄 것도 요구했다.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는 전략 선거구에 청년·여성을 우선 공천하고, 청년·여성 출마 지역은 경선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치신인 가산점 적용 기준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총선거획단에서 제안한 이 같은 내용은 12일에 열리는 공천관리위원회 첫 회의로 이첩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조 사무총장은 이어 "이재명 대표가 퇴원한 만큼 지도부 중심으로 단합해 차질 없이 총선을 준비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것"이라며 "민주·미래·희망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PI(Party Identity·정당 이미지)를 선포하고 민생 체감형 공약도 발표할 것"이라고도 했다.

조 사무총장은 선거제와 관련, "총선 준비에 가장 중요한 물이 아직 담보 상태"라며 "국민의힘도 열린 자세로 선거제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선출제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모델이 있는데 각자 본연의 가치가 있는 만큼 민주당은 당내 다양한 의견을 모아 입장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사무총장은 총선거획단에서 이른바 전직 다선 의원 등 '올드보이'들의 출마 자제를 권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 정도의 차원이지만 검토하는 사항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총선 '여당 지지' 39% '야당 지지' 50%

NBS...尹, 1%P 내린 32%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2%, '잘못하고 있다'는 61%였다.

3주 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1%포인트(p) 내렸고 부정 평가는 2%p 올랐다.

올해 4월 총선에서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39%로 직전 조사 대비 4%p 감소했고,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0%로 5%p 증가했다.

NBS 측은 이러한 투표 의향 조사 결과와 관련, "2023년 5월 조사 이래로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 33%, 정의당 3%, '지지 정당 없음·모름·무응답' 29%였다. 국민의힘은 이전 조사 때와 같았고, 민주당은 4%p 올랐다.

윤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추가조작 의혹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 23%, 부정적 평가 65%로 각각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15.8%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한동훈 "민주당, '금고형 이상 세비 반납' 제안 답해달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자신이 정치개혁 의제로 내세운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호응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공직자들은 공직 생활하던 중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퇴직금이 남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은 그렇지 않다. 그런 데다 재판

지연을 방탄 수단으로 쓰고, 그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걸 국민에게 보여주면서 이 나라 사법 체계가 잘못되고 있다는 잘못된 사인(신호)을 국민에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 사임 등으로 재판이 늦어지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천하람, 불출마 김용·오영환 의원에 "개혁신당서 출마" 공개 제안

개혁성향 수도권 초선 합류 타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개혁신당(가칭)은 11일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여야의 수도권 개혁 성향 의원들에게 신당 합류를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오영환 의원과 김용 의원이 공개적으로 신당에 와서 본인들이 무력감을 느꼈던 정치 현실을 한번 바꿔보시라 제안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초선·경기 의정부부강) 의원은 지난해 4월 일찌감치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국민의힘 김용(초선·서울 송파구) 의원도 지난 8일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천 위원장은 "나아가 할 사람들은 안 나가고 (여야 각 당) 내부에서 소신 있는 행보를 했던 팬클럽 분들이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은 우리 정치의 모순과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양당에서 '바꿀 수 없다', '같이 할 수 없다' 해서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신당에 와서 출마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

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신당에 오면 그것 자체가 새로운 출마 명분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기득권이 없고, 특히 지역에 출마하면 더 어렵다. 그것이 변화와 도전을 원했던 오 의원과 김 의원에게 아주 의미 있는 행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천 위원장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촉구하며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탄희(초선·경기 용인정) 의원에 대해서 "선거 제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의 의원은) 다시 입장을 바꿀 수 있는 명분이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31120-중-161682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 고민될때!
첨단우리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세요!!

첨단우리병원
전화 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